

01 교회소식

다국어로 주님 사랑 전해

은혜로운 말씀, 복된 간증...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신문 만민뉴스가 29개 언어로 발행된다.

02 생명의 말씀

권능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2013년 우리 교회에 사랑의 자유의지를 꺾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 전 성도 기도제목으로 주셨다.

03 기획특집

마음밭의 네 가지 유형

사람의 마음밭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길 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창세기 강해로 참 신앙을 찾았어요”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 근본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호산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566호 2013년 1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Belgium (벨기에) Russia (러시아) Canada (캐나다) USA (미국) Colombia (콜롬비아) India (인도) Australia (호주) Kenya (케냐)

KOREAN_MANMINNEWS RUSSIAN_MANMINNEWS

만민뉴스는 29개 언어로 발간돼 전 세계 독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님 사랑, 성경의 역사를 전한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만민뉴스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온 누리에 주님 사랑 전하는 29개 다국어 만민뉴스

세계 곳곳에 다양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신문 '만민뉴스'가 오는 2월부터 29개 언어로 발간된다. 유럽권 지교회와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불가리아어, 핀란드어가 추가로 창간되는 것이다.

'만민뉴스'는 1987년 5월 한국어 창간 이후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 번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어, 에스토니아어, 포르투갈어, 우크라이나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불가리아어, 핀란드어, 베트남어, 태

국어, 몽골어, 우르두어, 파갈로 그어, 비사야어, 인니어, 네팔어, 타밀어, 힌디어, 싱할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발간돼 영혼 구원에 한 몫을 감당해 왔다. 이는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문서선교에 확고한 뜻을 두고 사역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전 세계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 있으며, 신앙생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신앙상담과 기획특집 기사, 해외 각처의 선교 소식 등 은혜로운 콘텐츠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각 언어권의 독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민뉴스'의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 통해 영적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하나님 참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스라엘 로셀 마타이예브 장로는 "만민뉴스에 실린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특히 '일곱교회'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증을 통해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 법과 연단을 통해 치료받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

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일리노 슈라코브 성도는 "만민뉴스는 온 누리에 빛과 평화, 사랑, 그리고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 지구촌 구석구석의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 죠바니 루비아노 성도는 "만민뉴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므로 영적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권세 있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영적 축복과 신앙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캐나다

데이비드 디비에라 성도는 "만민뉴스는 가독성이 높은 문장과 다채로운 화보와 더불어 신앙생활에 유익한 기사가 게재돼 있어서 믿음을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www.manminnews.com)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다국어 만민뉴스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선교 현지에서는 필요한 언어를 선택해 『인쇄용 PDF』를 다운로드해 전도에 활용할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권능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바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43-44)

2013년 우리 교회 기도제목 네 번째, ‘권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펼쳐지는 권능에 대한 기도제목을 우리가 이뤄야 할 대성전에 관한 기도제목과 더불어 거의 매년 주십니다. 따라서 권능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나타날 뿐 아니라 해마다 더 깊은 차원의 권능이 펼쳐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1. 끝이 없는 하나님 권능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본 제단에 끊임없이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성경에 기록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대부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치료나 축복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 권능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권능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살펴봐도 2009년에는 ‘복합적인 권능의 역사’를, 2010년에는 ‘멈추지 않는 권능’을, 2011년에는 ‘폭발적인 권능’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폭발적인 권능이란, 마음에 선이 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본의 빛을 주시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로라 빛의 형상들이 휴대폰에 찍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의 빛으로 2011년에는 많은 분이 영으로 들어왔고, 온 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2012년에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기도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이때는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영혼들이 권능을 체험할 때 마음까지 변화되도록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013년 기도제목인 ‘권능’에 담긴 의미는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쥐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체험하는 이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움직여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권능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셔도 이를 믿고 안 믿고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죄악에 심히 물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아도 믿기를 거부하는 강박한 영혼들까지 한 번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체험케 하고 자유의지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 근본 마음과 일치된 권능

본 제단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하나님 근본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되게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의 마음을 깨우침으로 스스로 주관을 받아 행해야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언제, 어떻게 지실 것까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목표에 온전히 집중돼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나 제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섭리를 알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출

애굽 과정이나 결과를 다 알 수 없었으며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해 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열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가르며 권능으로 섭리를 완성해 가셨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앞으로 이뤄질 하나님 섭리를 아셨습니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할지, 매번 하나님께 여쭙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는 대로 가야 할 곳에 가고 해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루신 사역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 섭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 그대로 일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권능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위중하자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틀이나 지체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고는 그제야 길을 떠나셨지요. 도착해 보니 그는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자 그는 살아서 나왔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사로의 치료 한 가지만이 아닌 더 많은 일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실 시점을 앞두고 필요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기적을 통해 백성 사이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번져 나갔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요.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와 그 가족의 행함이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에 합당하다는 사실도 공의 가운데 이미 고려하셨습니다. 더불어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심어 주려는 뜻도 있으셨지요. 곧 예수님께서 한 번의 권능을 행하심으로 정확한 시점에 십자가 섭리가 이뤄지도록 모든 상황

을 복합적으로 엮어 가신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완전한 한 장의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권능을 행하며 사역을 이루셨지요.

4.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쥐는 권능

이 제단이 앞으로 이를 사역은 바로 이렇게 이뤄져야 합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권능이지요. 어떤 기사나 표적을 단편적으로 보이거나 몇몇 사람의 구원에만 그치는 권능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권능이며, 죽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쥐는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열왕들까지 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전쟁, 전염병 같은 큰 문제라도 공의에 합당하게 머릿된 사람들이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치와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 뜻과 섭리에 맞아야 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쥐는다고 해도 아무나 자유의지를 주관해 무조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권능을 나타낸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관을 받아야 하세요. 공의에 맞는 사람을, 공의에 합당할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순간 세계 정치, 경제적인 흐름 속에 복합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완성해야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경작의 대단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근본의 마음과 하나 돼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 제단을 세우시고 마지막 때 사명을 주신 이래로 쉽 없이 달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섭리를 온전히 이뤄드리고, 신속히 영과 온 영으로 나와 이 권능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뵈을 때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 11:00 P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공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시 일주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내 마음은 어떤 마음밭일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마음을 눈에 보이는 밭에 비유하셨다.

대표적인 마음의 유형으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네 가지로 분류해 설명해 주셨다.

마음밭은 어느 부모에게서 어떤 기를 받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이러한 마음밭의 차이는 각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영적 성장의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능히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으며,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비하면 마음밭을 개간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열심히 개간해 선하고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바란다.

길가밭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 13:4)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간혹 밭 근처의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흙 속에 묻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싹이 나지 않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한다.

길가밭은 단단한 마음, 곧 강박한 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성령 체험이

없는 가운데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믿음을 가지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대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강박한 길가밭을 개간하려면 교만, 자존심, 고집, 거짓 등 마음의 악을 버리고 자기 의와 틀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비진리로, 악으로 굳어진 마음

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면서 지속적으로 개간 작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령,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 생각과 지식이 옳은가?’ 하고 궁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선한 행함을 쌓아야 한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일꾼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

돌밭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 13:5~6)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은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곳은 흙이 깊지 않아서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긴 하지만 곧 햇볕에 말라 버리고 만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싹이 마음에 박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곧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은혜를 받지만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만다. 여기서 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

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이다. 같은 돌밭이라도 이 비진리의 돌들이 얼마나 크고 깊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 마음밭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또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다.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 뿐 마음으로 깨닫거나 마음으로 믿는 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지식적

인 믿음이라고 한다.

돌밭을 개간하려면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야 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중간에 개간을 멈춰서는 안 된다. 또한 은혜받은 말씀이나 성령이 충만할 때 주관해 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순종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개간할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응답받을 수 있다.

가시떨기밭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 13:7)

가시떨기란 가시나무의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 수북하게 된 그 전체를 가리킨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싹도 트고 어느 정도 자란다. 하지만 가시떨기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는 영적으로 마음에 세상 염려와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에 대한 탐

심을 말한다. 그래서 가시떨기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살아간다.

가시떨기밭을 개간하려면,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악을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며, 그 뿌리는 마음의 악이다.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뜻대로 되

지 않는다. 특히 여러 뿌리 중에서 탐심과 교만이라는 두 개의 큰 뿌리를 뽑아버리면 마음에서 많은 것이 버려진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쉽게 뽑아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시떨기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옥토밭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 13:8)

옥토밭은 길가밭처럼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워 씨를 뿌리면 흙이 곱고 부드러워서 흙 속에 자리를 잘 잡는다. 또 흙 속에 공기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싹도 잘 튼다. 이처럼 옥토밭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한다.

또한 마음에 돌이 없어서 말씀의 뿌리가 쭉쭉 뻗어 나간다. 즉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다.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려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기에 기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므로(눅 8:15) 삶 속에 축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불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신속히 옥토의 마음을 이뤄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
February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27~22)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7-21
 - 공부 잘하는 비결 1-4
 - 창세기 강해 4-8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4-8
 -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GCN TV설교

- 육과 영 1-5 (이수진 목사)
- 노력하는 삶 (이미영 목사)
- 외치는 자 (김승신 전도사)
- 'GCN TV특강' 십자가의 도 (정구영 목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15-18
- 찬양과 경배 (3) 44-50
- 해외성회 시리즈
 - 이스라엘연합대성회 1
 - 독일연합대성회 - 종합편

간증 프로그램

- 인도연합대성회 4
-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2) 10-1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창세기 강해 통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깨우치니 천국 소망이 가득합니다”

정호산 형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23중대 경위, 3청년선교회)

“우와! 이런 말씀이~”

인터넷 한 블로그에 게재된 창세기 강해를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첫 편을 대하면 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초에 빛과 소리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근본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역사, 루시퍼의 탄생과 반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십자가 구원의 섭리, 첫 사람 아담의 창조 등 모든 내용이 마치 눈앞에서 본 듯했고, 너무나 큰 확신 속에 담대히 증거된 내용들을 보며 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창조하신 사람이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깨우치니 그 사랑에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을 알리라”(마 7:20)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참 목회자라고 확신할 수 있었지요. 이후 저는 1년 6개월 정도 그분의 설교와 저서들을 탐독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뜻을 깨우치고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니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며 성결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은 있었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대체 어떤 깊이인지, 또 자신이 날마다 죽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에 와 닿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 저서 『믿음의 분량』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성결에 담긴 가치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구구절절이 깨우쳐졌습니다. 그 외에 『천국』(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등의 저서와 『요한계시록 강해』 등 설교를 통해 성경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우치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니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우쳐 주는 말씀들을 들으며 제 삶은 변화했습니다. 제 마음에 내재한 죄성과 악의 모양들을 벗어 버리기 위해 노력하며, 말 한마디라도 상대에게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썼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졸업 후 제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기동부대 제2기동단의 소대장으로 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9월, 저는 사모하던 만민중앙교회의 양떼가 됐습니다. 이후 참된 평안과 천국 소망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참 목자를 만나 선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경찰대학에 입학 후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2개월간의 필리핀 어학연수 기간 중 기도회에 참석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눈물 콧물 흘리는 통회자복과 더불어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 속에 제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성경을 읽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경찰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시작한 학교 기숙사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선배후배 관계가 군대처럼 엄격했고 1학년이 모든 잡무를 담당했으며, 여러 제식 훈련, 선배들이 주는 훈련, 과중한 학업 등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끄럽게도 제 신앙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매일 읽던 성경도 멀리하고 주일예배도 가끔 건너뛰고, 십일조도 드리지 않았으며, 기도도 잠들기 전 형식적으로 잠깐하고 끝냈지요.

성령 체험 후 마음 가득했던 기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곤고함으로 바뀌었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수

면상태에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려 2년간 온갖 게임과 인터넷서핑으로 허송세월했지요. 그래도 제 마음은 여전히 곤고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소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회심기’라는 글을 읽고 사랑의 하나님을 깨우치면서 지난날을 회개하며 통회자복했습니다. 그 후 푸른 하늘만 봐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 행복했지요. 그 후 성경을 다시 읽게 됐고, 기도하며 집 근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신앙이 회복되고 참 목자를 만나

그즈음 개인 블로그에서 창세기 강해를 읽게 됐습니다. 근본까지 풀어주시는 설교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지요. 이 강해를 접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확신과 깊은 영적 지식을 소유하신 이분은 대체 누굴까?’ 궁금했지요. 검색해 보니 바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만민중앙교회가 모 단체로부터 정죄받은 적이 있다는 말에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지?’ 하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파헤쳐보자.’ 마음먹었지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양쪽 편의 자료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읽으면서 정죄 대상의 바탕이 된 근거들을 찾아보았지요.

제가 찾은 자료들은 처음부터 편견과 오해로 일관했고, 거짓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은 맑고 깨끗했으며 대하면 대할수록 은혜가 충만했지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영혼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한 연합대성회 하이라이트, 감동적인 외국인들의 치료 간증 영상,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운순한 잡자의 출현, 영의 빛들의 발견 등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을 담은 영상물들을 시청하면서 의심은 저절로 해소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을 명백히 보여주는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괴성읍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군포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경기도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